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07월 07일
(월요일)

강북신문 2면

◆특별기고

동장 인사 소감

7월은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철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맞아 퇴임식을 갖거나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 간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洞長) 인사에 대해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동장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으로 구청에서 과장 보직에서 발령 받거나 6급 계장에서 승진하여 오기도 한다.

동장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10개가 넘는 각종 직능단체가 있어 동장은 매번 회의에 참석하여 구청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다 보니, 늦게 퇴근하고 직능단체 주민들과 술도 마시게 되는 날도 많다.

이러다 보니 동장과 주민들 사이에도 좋은 일, 싫은 일도 많이 생겨 정이 쌓이게 된다.

동장 인사는 보통 1년 반 혹은, 2년 마다 실시되지만 발령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서 타 지역으로 발령 나가는 하면 4년 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뒷말도 많다.

동장이 전근 갈 때 주민들은 송별



김명숙

강북구의회 의원

모임과 난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표시한다. 동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받은 축하 난 숫자가, 그 동장의 직무평가라는 우스개 이야기도 나뉜다.

주민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주민과 겉도는 동장 인사는 행정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동장이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가깝거나 자신의 승진만을 염두에 둔 편파적인 행정은 주민을 분열시킨다.

인사권을 가진 강북구청장은 동장의 소중한 임무인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정파적 시각에서 관여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

시사프리 5면

● 기고

강북구 인사발령을 보고

강북구의원 김명숙



7월은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철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맞아 퇴임식을 갖거나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 간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洞長) 인사에 대해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동장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으로 구청에서 과장 보직에서 발령 받거나 6급 계장에서 승진하여 오기도 한다.

동장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10개가 넘는 각종 직능단체가 있어 동장은 매번 회의에 참석하여 구청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다 보니, 늦게 퇴근하고 직능단체 주민들과 술도 마시게 되는 날도 많다. 이러다 보니 동장과 주민들 사이에도 좋은 일, 싫은 일도 많이 생겨 정이 쌓이게 된다.

동장 인사는 보통 1년 반 혹은, 2년 마다 실시되지만, 발령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서 타 지역으로 발령 나가는 하면 4년 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뒷말도 많다.

동장이 전근 갈 때 주민들은 송별 모임과 난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표시한다.

동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받은 축하 난 숫자가, 그 동장의 직무

평가라는 우스개 이야기도 나뉜다. 주민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주민과 겉도는 동장 인사는 행정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동장이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가깝거나 자신의 승진만을 염두에 둔 편파적인 행정은 주민을 분열시킨다.

인사권을 가진 강북 구청장은 동장의 소중한 임무인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정파적 시각에서 관여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본청에 편중된 인사보다는 인사요인과 개인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주민센터 동장은 일정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효율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



기고

동장 인사 정파적 시각이나 관여, 간섭 배제해야

7월은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철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맞아 퇴임식을 갖거나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 간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洞長) 인사에 대해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동장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으로 구청에서 과장 보직에서 발령을 받거나 6급 계장에서 승진하여 오기도 한다.

동장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10개가 넘는 각종 직능단체가 있어 동장은 매번 회의에 참석하여 구청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 하다 보니, 늦게 퇴근하고 직능단체 주민들과 술도 마시게 되는 날도 많다. 이러다 보니 동장과 주민들 사이에도 좋은 일, 싫은 일도 많이 생겨 정이 쌓이게 된다.

동장 인사는 보통 1년 반 혹은, 2년 마다 실시되지만, 발령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타 지역으로 발령 나가는 하면 4년 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모호 하다는 뒷말도 많다.

동장이 전근 갈 때 주민들은 송별모임과 난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표시한다. 동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받은 축하 난 숫자가, 그 동장의 직무평가라는 우스개 이야기도 나돈다. 주민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주민과 겉도는 동장 인사는 행정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동장이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가깝거나 자신의 승진만을 염두에 둔 편파적인 행정은 주민을 분열시킨다.

인사권을 가진 강북 구청장은 동장의 소중한 임무인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정파적 시각에서 관여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



김 명 속
강북구의원

特別寄稿

동장(洞長) 인사를 보고 느끼는 점

강북구의원 김 명 속

7월은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철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맞아 퇴임식을 갖거나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 간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洞長) 인사에 대해 느낀 몇 가지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동장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으로 구청에서 과장 보직에서 발령 받거나 6급 계장에서 승진하여 오기도 한다.

동장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10개가 넘는 각종 직능단체가 있어 동장은 매번 회의에 참

석하여 구청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다 보니, 늦게 퇴근하고 직능단체 주민들과 술도 마시게 되는 날도 많다.

이러다 보니 동장과 주민들 사이에도 좋은 일, 싫은 일도 많이 생겨 정이 쌓이게 된다.

동장 인사는 보통 1년 반 혹은, 2년 마다 실시되지만, 발령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타 지역으로 발령 나가는 하면 4년 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이 모호 하



는 뒷말도 많다.

동장이 전근 갈 때 주민들은 송별모임과 난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표시한다. 동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받은 축하 난 숫자가, 그 동장의 직무평가라는 우스개 이야기도 나돈다. 주민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주민과 겉도는 동장 인사는 행정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동장이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가깝거나 자신의 승진만을 염두에 둔 편파적인 행정은 주민을 분열시킨다. 인사권을 가진 강북 구청장은 동장의 소중한 임무인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정파적 시각에서 관여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